

담당_홍선화

성북지회 새 출발 다짐한 '현판식' 개최



성북지회(지회장 박정만)는 현판식을 개최하며 지회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약을 기원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에 위치한 지회 사무실에서 박정만 지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과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지회 임원들은 지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회원들의 권익과 제과업계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천지회 지체 장애인들에게 이웃 사랑 실천



양천지회(지회장 이동택)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아래 이웃을 돕는 나눔사랑을 실천해 훈훈한 정을 나눴다. 양천지회는 지난 11월 3일 양천공원에서 1천 명의 장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양천구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해 추재엽 양천구청장에게 빵 1천 200개를 헌정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양천지회 임원과 회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앞장서서 빵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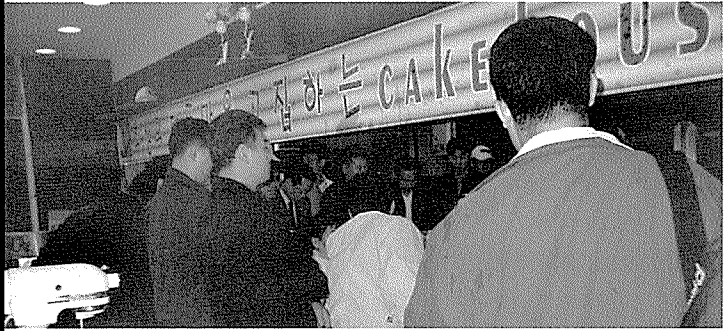


제주도지회 기존업주 위생보수교육 개최

제주도지회(지회장 박광만)는 지난 10월 13일 제주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관내 제과점 영업주 110명을 대상으로 위생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주도청 보건위생과 김은형 계장, 제주시청 진항봉 위생과장, 제주한라대학 호텔조리학과 오영주 교수, 제주시청 환경관리과 송형석 계장 등의 강의로 4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식품위생시책 및 관계법령을 비롯해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과 1회용품 사용 규제 등 환경 위생 정보는 물론 제과점 경영 관련 영업주 책무 등 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박광만 지회장은 "제과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식품위생시책 및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준수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동참하자"고 밝혔다.

Prism

성북지회·성남시지부 건강 소재 이용한 세미나 개최



성북지회와 성남시지부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고심하는 회원들을 위해 건강소재인 '쌀'과 '상항버섯'을 이용한 세미나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성북지회(지회장 박정만)는 지난 11월 10일 석관동에 위치한 케익하우스리치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위 사진). 이번 세미나는 1년에 한번씩 성북지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세미나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주)하쿠푸드에서 재료를 협찬 받아 진행했다. 이날 실연한 쌀빵 관련 품목은 웰빙 열풍에 힘입어 회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성남시지부(지부장 방충성)는 지난 10월 21일 성남제과학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활발한 지부 활동을 보여주었다(아래 사진). 상항버섯과 쌀과자를 소재로 각각 성남제과학원 강난기 원장과 성남시지부 장갑수 이사의 실연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신제품으로 매출을 활성화하려는 회원들의 높은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방충성 지부장은 "회원들의 기술 발전과 매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양천지회, 군포·의왕지부, 수원시지부 체육대회

가을 단합대회 개최, 화합의 장 마련



양천지회와 군포·의왕시지부, 수원시지부가 가을맞이 단합대회를 개최해 친목을 도모하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양천지회(지회장 이동택)는 지난 10월 26일 충청북도에 제천에 위치한 월악산으로 등산을 다녀왔다(맨 위 사진). 이날 단합대회에는 이동택 지회장을 비롯해 43명이 참석해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산행을 하면서 회원들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쌓았다.

군포·의왕시지부(지부장 이관형)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 의왕시 고천초등학교에서 이관형 지부장을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가운데 사진). 이날 체육대회에서 협회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관련 업체 사람들이 함께 축구, 족구, 제기차기 등을 하며 돈독한 정을 쌓는 단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수원시지부(지부장 양경보)는 지난 10월 21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남이섬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맨 아래 사진). 이날 양경보 지부장을 비롯해 50명이 참석해 축구, 피구, 보물찾기 등을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Prism

서부지회·성남시지부

김영모과자점·매일유업

평택공장 견학



서부지회(회장 신홍중)는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빠진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매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과점 모범사례로 꼽히는 제과점을 견학한 후 불황 타개를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지난 11월 13일 오후 3시부터 4시40분까지 신홍중 지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들과 이사, 회원 등 서부지회에서 18명이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김영모 회장의 점포인 김영모과자점 도곡점과 살롱 드 김영모를 방문해 매장 인테리어 및 제품, 고객 대응 서비스 등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위 사진). 신홍중 지회장은 "최고의 품질과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이어지면 고객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 만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성남시지부(지부장 방중성)는 지난 9월 17일 방중성 지부장을 비롯해 25명의 회원들이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우유 보관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한편 위생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아래 사진).

제과·제빵 필수재료인 우유가 어떻게 가공되는지 살펴본 회원들은 제품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